일본불교와 단가 제도

현대불교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단가(檀家) 제도'가 약화함에 따라 관혼상제를 위한 '스님 파견 서비스'가 등장한 현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일본불교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단가 제도와 신도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김옥암 안동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불교 단가 제도의 기원과 흐름, 현재 상황과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를 담은 기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일본의 절에는 한국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무덤[墓]이다. 이는 '단가(檀家)'라는 일본불교의 특수한 제도 때문이다. 단가란 집안 묘소와 장제(葬祭)를 사찰에 대대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근래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현세 이익을 구가하는 신흥종교의 출현 등 다양한 이유로 단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장원 소유한 대사찰 등장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幕府)의 출현은 일본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왕은 존재하지만 막부의 쇼군(將軍)이 전국의 무사 계급을 세습적 주종관계로 조직해 사실상 모든 실권을 행사했다. 쇼군은 무사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무사는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녔다. 이 무가정치 체제는 이후 무로마치(室町) 막부, 전국(戰國) 시대, 도쿠가와(德川) 막부로 계승됐다. 이 시대, 무사의 윤리와 함께 무인의 취향에 맞는 선종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가 형성돼 작고 섬세하며 조용하고 그윽한 것을 지향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그런데 여러 무인 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각 정권은 지방 호족과 귀족 및 사원 세력의 분권적 경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왕권이 강화되면서 귀족정치가 발전했고, 점차 무사단과 불교 세력도 강화됐다. 당시 광대한 장원을 소유한 대사찰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승병(僧兵)을 두었고 무인 정권과도 대등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무로마치 막부가 약화된 후 분열된 전국(戰國) 시대에는 지역[藩]별 영주(다이묘, 大名)를 위협할 정도로 힘을 가진 대사찰도 생겨났다.

쇄국정책서 비롯된 단가 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후 일본 통일을 실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에도(江戶) 막부를 열고(1603년), 각 지방의 자치권을 통합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幕藩]를 확립했다. 이 중앙집권적 봉권 체제하에서 국가의 지배층은 여전히 무사 계급이었지만, 정부는 성리학적 유교 윤리로 민중을 교화하면서 치외법권적인 불교 세력에 정책적 메스를 가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것이 크리스트교의 탄압을 통한 쇄국정책이다.

16세기 중엽 포르투갈인이 도래한 이래 일본의 크리스트교는 급성장했고, 조총을 비롯한 서양의 문물이 일본에 도입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열성 정토불교 신자임에도 처음에는 크리스트교를 묵인하고 교역을 장려했으나, 크리스트교가 서양 세력과 결탁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자 탄압과 더불어 쇄국정책을 강행했다.

이러한 막부의 크리스트교 탄압에 협력한 것이 사찰이다. 사찰은 막부의 금교(禁教) 정책에 협력하는 형태로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파고들어 갔다. 막부는 크리스트교도에게 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증하는 증서[寺請證文]를 발행해, 반드시 사찰에 신자로서 귀속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것이 단가 제도의 시작이다.

'단가' 의무화로 재정 안정…부작용도

도쿠가와 시대에는 봉록 생활자인 무사 계급의 궁핍화로 농민 수탈이 강화돼 사회가 불안정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데다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됐다. 막부는 단가에 의한 장기적인 참배나 보시(布施)를 의무화했기에, 사찰은 고정적인 '고객'을 획득하고 안정된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찰은 행정기관 역할을 맡는 보상으로 수입의 안정성을 구축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는 1635년 '사사봉행(寺社奉行)'이라는 사원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大臣)을 두고, 사찰을 행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각 절을 종파별 상하 관계로 조직해 관리 체제를 강화한 후 '후레가시라(觸頭)'라는 막부 담당 승려를 배치해 중앙 행정 명령을 각 종단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직화하면 막부는 각 종단의 본산(本山)만을 잘 감시하면 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폐해도 많았다. 종파별 주지의 임명권 등 하부 사찰의 인사권 상납금 등 모든 생사여탈권이 본사에 주어졌고, 본사는 그것을 단가제로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됐다. 사찰이 단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주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과도한 보시나 노역을 금함과 동시에 주지 교체 등 단가에 대한 개입권을 강화해 나갔다. 또 '제종승려법도(諸宗僧侶法度)'를 제정해 승려는 학문에 전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정부 강제한 '불교'에 종교성 약화

당시 에도 막부가 두려워한 것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구심점으로 결속하고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때 대중의 결속을 막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단가 제도였다. 신도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로 공



일본불교의 특징인 제도인 '단가'가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사진은 일본 사찰의 모습. 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도 막부, 대중의 정권 대항 두려워해
신앙 중심 결속 막으려 단가 제도 시행

사찰 재정 보장으로 종교성 약화 초래
단가 제도 폐지 후 의례적 행사로 남아

특정 의례·장례 기능 의존하는 종교의
신행 동력·교화력 약화, 경고등 삼아야

여한 신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찰에서는 안정된 고객으로 재정이 보장되자 종교로서의 역할과 진취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260여 년이나 이어졌는데, 일본인에게 종교성이 약화된 원인을 여기서 찾기도 한다.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신심의 알맹이를 빼내 가치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당시 무덤은 부락의 공동묘지나 마을 밖에 있었으나 단가 제도로 절에서의 법사(法事)가 의무화되자 관리하기 쉽도록 무덤을 절 안에 두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지의 관심사는 신도들에게 교리를 충실히 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단가를 더 늘릴지'로 이동하게 된다. 단



일본 '교토신문'은 지난해 11월, 관혼상제에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사진 출처=교토신문

가를 늘리는 방식 중 하나가 불교 행사의 의식화로,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 관련 기념일 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상의 추도 공양을 정기화한 것이다. 49일, 1주기 등 수차에 걸친 사후 법사를 진행함으로써 정기적인 보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불교에 비판도

한편, 일본 특유의 국학에 종교색을 가미한 신도(神道)와 부유한 도시 상인 중심의 조닌(町人) 문화가 발달하면서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 일환으로 오카야마(岡山), 미토(水戶) 등 여러 지방에서 사찰의 통폐합과 승려 수 삭감 등이 실시됐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메이지(明治) 유신 후 폭발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메이지 정부가 전개한 신도국교화(神道國教化) 정책이다. 메이지 정부는 신도와 불교를 분리했을 뿐 아니라 불상 파괴와 경문 소각 등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 불교도들의 반발로 신도와 불교 간 대립 사태로까지 발전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고, 1875년 이윽고 국민에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됐다.

메이지 시대에는 문명개화의 열풍으로 서양의 의식주 생활을 모방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자유 민권 운동도 전개됐다. 정부는 1872년, 승려가 고기를 먹거나 처(妻)를 취하며 머리카락을 기르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포고령(太政官布告)'을 내렸다. 일부 사찰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 자식에 사찰을 계승할 수 있는 데다 세습제는 단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흥종교의 대두는 또 다른 특징이다. 메이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약 175만 명의 신자를 포용한 천리교(天理教)를 비롯한 신흥종교가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올린 것은 창가학회(創價學會)였다. 신흥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현세(現世) 이익이다. 전후 경제가 부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현세를 보다 살기 좋은 만들어야 한다는 욕구를 추구해 갔다. 몇 개의 교단은 그러한 욕구에 상응하는 형태로 세력을 펼쳐 나갔다.

장기 계약으로 신뢰 잃고 의례화

반면 사찰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 에도 시대 이래 '지역밀착형 장제사업자'에 머문 사찰은 신앙 시장에서 고객 욕구에 대응할 만한 종교 활동을 제공할 수 없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도 사찰에는 역풍이 됐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에는 에이손(叡尊)과 그의 제자인 닌쇼(忍性)라는 승려가 한센병 환자의 구조 활동을 했고, 사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자선사업은 출가자가 보살(수행자)로서 중생(일반인)을 구제함으로써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세상을 위한 사찰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가행정에 의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의 복지 활동은 그 의미를 잃게 됐다.

메이지 시대에 단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신도와 사찰과의 계약 관계로서의 단가 제도는 존속해 현재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단가라는 장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계약이 장기화되면서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단가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이어지면서, 참된 불교신자로서의 신념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또 절의 주지는 지역의 장례 및 법률 상담사로 인식돼 중생 구제와 포교 활동이란 본래 업무를 등한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단가 위기, '신행 자발성 회복' 경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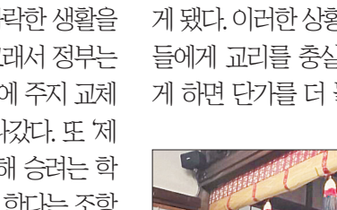
단가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문제는 근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나 핵가족화란 흐름에서 장례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한국불교 역시 신행공동체의 노령화, 가족 구성의 급속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미 유사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불교의 사례는 종교가 특정 의례나 장례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신행의 내적 동력과 교화력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장례와 제례를 넘어, 일상과 수행·교육·사회 참여 속에서 체험 가능할 때 종교는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의 단가 약화는 경고등이다. 제도적 안정보다는 교리의 생명력, 행정적 관계보다는 신행의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김옥암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